



# “마음 비우니 땡땡 터지네요”

## KIA 불방망이 안치홍



부진했던 지난해 만회하려 캠프서 구슬땀  
을 19경기 타율 0.323...연속경기 홈런도

“저는 행복합니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안치홍이 웃는다.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했던 표정이 달라졌다. 광주 6년차를 강조한 안치홍은 “이젠 편하게 야구 할 해볼라고요”라며 능청스럽게 사투리로 얘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달라진 표정,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해는 안치홍에게 잊고 싶은 시즌이었다. 입단과 함께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승승장구 했던 그에게 닥친 위기. 초반 슬럼프에서 벗어나 지 못하면서 시즌 내내 비틀거렸다. 올 시즌은 19경기에서 0.323의 타율로 12타점 8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권 타율은 0.467에 이른다. 특히 지난 SK와의 경기에서 나온 두 경기 연속 홈런은 안치홍의 올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다. 시원하게 방망이가 돌아가며 잠잠하던 장타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치홍은 담담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안치홍은 “고작 두 경기 잘못 짓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시즌이 잘 끝나고 나서야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떤 부분을 신경썼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욕심 하나는 팀에서도 손에 꼽는 악바리. 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시즌을 출발했고, 매일 자신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고민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올 시즌 안치홍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자신이 서는 타석, 처리하는 공 하나만 보고 있다. 안치홍은 “타율이 얼마인지 안타는 몇 개를 때렸는지도 모른다. 그냥 한 경기, 한 타석에 집중하고 있다. 주자 있을 때도 편하게 하자는 마음이다. 노리는 공이 비슷하게 오

면 자신있게 돌리자, 편하게 하자며 타석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편해진 마음 그 뒤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한대화 수석코치는 “정말 많이 준비했다. 캠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했다”고 귀띔을 했다. 노력의 결과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다는 안치홍. 이상하게도 지난 시즌에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다. 그런데 마음이 아왔다. 올 시즌은 그와 반대다. 안치홍은 “사실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좋지 않다. 그래도 마음 아픈 것보다는 몸 아픈 게 낫다. 마음이 편하니깐 별로 힘들지도 않다”고 말했다. 간절했던 아시안게임에 대한 생각도 잊었다. 하루하루 충실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목표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를 즐기기로 섰다는 마음이다. 안치홍은 “대표팀에 갈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만 편히 부업을 갖고 뛰고 싶지는 않다. 매 경기에 충실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 대표팀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좀 편하게 재미있게 야구를 하고 싶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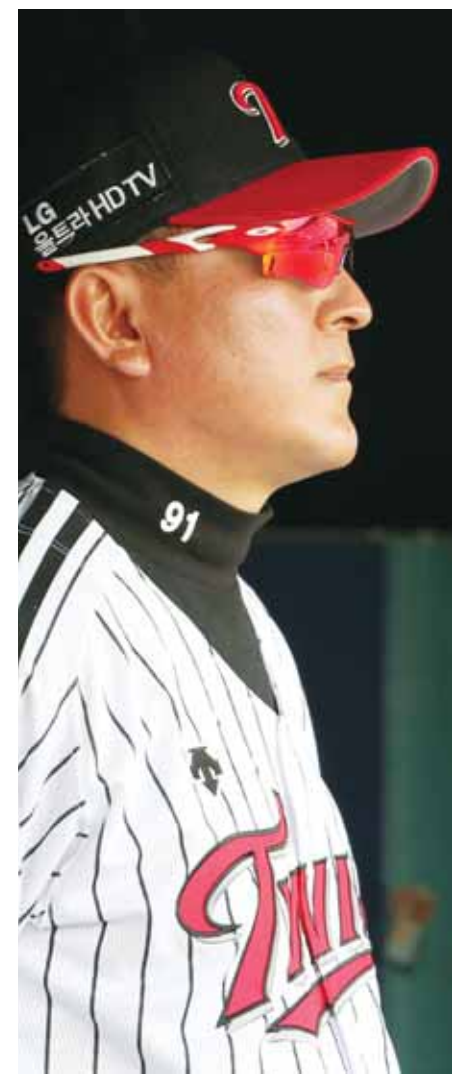
## 그라운드 톱·톡·톡

## LG 감독 사퇴 ‘그라운드의 신사’ 김기태

# 모교 광주일고에 남몰래 방망이 기부 “불보이에게 지갑 열었던 따뜻한 선배”

지난해 봄 광주일고에 방망이 잔치가 벌어진 적이 있다. 광주일고 운동장 한쪽에 그득 쌓인 방망이 30자루. 김기태 전 LG 감독이 보낸 선물이었다. 김 전 감독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 광주일고 김선섭 감독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얼마 뒤 30자루의 방망이를 자신의 모교에 내려보냈다. 700만원 상당의 선물이었다. 하늘 같은 선배가 보내준 방망이에 후배들 얼굴에는 이날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다. 그리고 얼마 뒤 LG가 KIA와의 경기를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았다. 3루 덕아웃에서 기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던 김 전 감독에게 슬쩍 방망이 얘기를 꺼냈다. “후배들에게 반가운 선물을 보내주셨던데요”라는 인사에 김 전 감독은 손사래를 치며 짐짓 모른 척을 했다. 김 전 감독의 의중을 생각해 더 이상 방망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가진 것을 남들에게 베푸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용히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 흥분

히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김 전감독은 남몰래 후배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조용히 손사래를 쳤다. 서립초-충장중-광주일고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 그리고 LG를 11년 만의 가을 잔치로 이끌었던 덕장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김기태. ‘그라운드의 신사’와 어울리는 그의 모습은 또 있었다. 광주에서 야구가 열리는 날에는 지역의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불보이로 나선다. 이들은 경기전 프로 선배들의 훈련을 위해 장비와 경기, 경기 도중 방망이를 나르고 심판에게 공을 배달하는 역할 등을 한다. 아들 같은 후배들에게 김 전 감독은 끈질기게 지갑을 열었다. 대중없이 잡히는 대로 돈을 꺼내서 아이들의 손에 쥐어줬다고 한다. 용돈을 건네주는 김 전 감독의 표정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독이든 선배’로 얘기되는 LG 사령탑. 김 전 감독이 지난 23일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시즌 그라운드에 불었던 김기태발 신바람은 멈췄다. 18경기 만에 그라운드를 떠나며 ‘그라운드의 신사’는 1982년 삼미 박현식 감독·해태 김동엽 감독(이상 13경기), 1983년 MBC 백인천 감독(16경기)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이른 시기에 사퇴한 사령탑으로 남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서울점 02)765-9940